



열다섯 번째 이야기 • 2nd 라이브

이한주 사토 유키에 계수정

2nd Improvisation Live Music Performance

양 신 계 양 흥 김
영 지 수 지 윤 지
광 수 정 선 경 영

일시 | 2020. 09. 22 (화) PM 7:30

NAVER 공연 *live*

주최 | 주관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Live 장소



sueño 339
SPACE of ART
예술공간수예노

본 공연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중장기지원사업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음악오늘 열다섯 번째 이야기 Live <즉흥>

즉흥연주에 대하여

‘즉흥연주’ 혹은 ‘즉흥음악’에 대한 생각을 사람들에게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즉흥연주가 지닌 고유한 예술성을 떠올리기보다는 다소 생소한 음악으로 낯설게 여기거나 혹은 곡의 과정과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난해한 음악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러한 즉흥연주의 인상은 전통적 기능화성에 익숙해져 있거나 악보를 통해 음악을 인식해온 음악 전공자들에게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즉흥연주란 과연 무엇이며, 즉흥연주의 아름다움을 느끼기 위해 청중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이에 대해, 즉흥연주자 이한주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흥연주는 연주자와 연주자, 그리고 연주자와 청중이 서로 교감하는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입니다. 즉, 즉흥연주는 보여주기 위한 ‘공연’의 개념보다는 연주자 간의 눈빛 교환, 표정 그리고 제스처에 집중하면서 상호 간의 내적 교감에 따라 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때 청중은 연주자들의 음악적 교감을 지켜보면서 그들과 동일한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때론 연주자의 일부가 되어 그들과 함께 음향을 탐색하는 상상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청중이 열린 마음으로 연주자와의 교감에 참여하고 서로 음악적 공감을 이룬다면, 우선은 연주자들에게 큰 도움으로 작용할 것이며, 더 나아가 연주자와 청중 모두에게 만족할만한 재미있는 공연이 될 것입니다.”

이한주의 설명을 통해 우리는 즉흥연주가 단지 보고 듣는 공연에서 벗어나 연주자 간의 교감을 청중이 인지할 수 있으며, 청중 역시 연주자의 일환이 되어 그들과 함께 호흡하며 음악적 공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즉흥연주는 언제부터 유래되었으며, 어떠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지금까지 발전해 왔을까?

16세기 이전, 악보가 확립되지 않았던 시대의 모든 곡을 즉흥연주로 간주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16~18세기의 ‘전체적 즉흥연주’와 ‘부분적 즉흥연주’의 구분으로부터 체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세기에는 작곡가의 의도성이 음악 양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다. 이후 20세기에 들어와 즉흥연주의 위치는 더욱 제한되었으나, ‘재즈(Jazz)’를 통해 부활하였고, 재즈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발전되었다. 또한, 20세기 중엽, 존 케이지로부터 구축된 우연성음악은 작곡가가 형성한 범주 안에서 나타난 우연성, 즉 불확정성 요소를 즉흥연주를 통한 연주자의 창의성에 의해 생성되도록 하였다. 이후 슈톡하우젠, 펜데레츠키, 볼레즈 등은 곡의 일부분에 우연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즉흥의 요소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품에 반영되도록 확장 시켰다. 또한, 즉흥연주는 서양음악에서뿐만 아니라 동양음악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국악이 즉흥연주를 기반으로 확립된 대표적인 음악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즉흥연주는 “생소하다”라기보다는 음악역사상 가장 오래된 유래를 가지고 있는 보다 “전통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음악오늘은 이번 <열다섯 번째 이야기-2nd 라이브 ‘즉흥’>을 통해 지금까지 다소 생소하고 이해하기 어렵게만 느껴졌던 즉흥음악을 청중들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였다. 작곡가들과 연주자들의 성실하고 진정한 노력의 결실로서, 청중들은 즉흥연주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더 나아가 한국의 음악공연 문화에 깊은 인상을 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글 | 음악이론가 김은진

양영광 | 야우 (夜雨) (2020)

for piano, e-guitar, experimental instruments and recorded sounds with live electronics
연주 | 이한주, 사토 유키에, 계수정, 양영광 (live electronics)

녹음된 피아노 음색과 다양한 빗소리 녹음을 이용하여 밤에 내리는 비를 표현하는 작품이다. 밤에 내리는 비의 풍경을 담아내기 위해 실제 악기의 소리를 통해서 음색을 더하고자 했다. 단순한 음색의 표현을 위함이 아닌, 비가 오는 상황에서 상상할 수 있는 표현을 말한다.

신지수 | 전원소나타 (2020)

for e-guitar, piano, toy pianos(1 player) and percussion
연주 | 이한주, 사토 유키에, 신지수

전원소나타는 같은 제목의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의 시작 부분을 모티브로 하여 21세기의 오염된 환경을 표현하여 일렉기타, 사물들, 이펙터, 피아노와 토이피아노 등을 사용한 세 명의 연주자를 위한 편성으로 재작업하였다. 연주자들은 곡의 대략적인 흐름을 담은 그래픽 악보를 보며 즉흥연주를 한다.

계수정 | a.S.a.p (2020)

for Bells
연주 | 출연진 모두 (feat. 캘리그래프 최노아)

주어진 시간을 가장 (주관적으로) 느리게 느끼며 연주하는 곡으로 제목의 대문자 S는 slow를 의미한다. 모래시계와 종으로 연주되는 곡이며 연주자들이 시작과 끝을 함께하지만, 중간에는 자신의 주관적 생각으로 '느림'을 표현하며 연주하는 곡이다.

양지선 | recollection of the mutual moments II (2020)

for e-guitar, piano and experimental instruments
연주 | 이한주, 사토 유키에, 계수정, 양지선(영상)

2012년도 일렉기타와 비브라폰을 위한 곡을 구상할 때, 끝없는 울림과 잔향에 대해 상상하고 작품을 써 내려갔다. 오늘은 피아노와 기타의 e-bow와 활을 사용하여 긴 확장진행과정의 시간을 들어보고자 한다.

홍윤경 | The goblin's song (2020)

for e-guitars, piano, toy piano, and experimental instruments
연주 | 이한주, 사토 유키에, 신지수, 계수정, 홍윤경(영상)

아이가 보는 도깨비 동화책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착안하여 구성되었다. 소리를 이용하여 도깨비가 서서히 만들어지고 또 사라지게 되는 과정이 즉흥적인 소리의 움직임을 통하여 표현된다.

김지영 | The Absurdity of Writing Poetry II (2020)

for e-guitar, piano, experimental instruments and typewriter
text by Matt Slaybaugh
연주 | 이한주, 사토 유키에, 계수정, 김지영(Typewriter)

미국 극작가이자 연극연출가인 Matt Slaybaugh의 모노드라마를 토대로 시인으로서 느끼는 세상의 부조리를 즉흥연주로 재해석한다. 예술가는 예술을 통하여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찾으려 부단히 노력하지만, 세상은 예술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일인지, 나아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상기시킨다. 곡 중간중간의 비관습적 악기사용과 즉흥연주는 이러한 세상에 대한 예술가들의 소심하면서도 장난기 어린 반항이며, 앞서 세상을 살아낸 위대한 예술가들의 이름을 외치며 이 유지한 반항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믿는다.



실험연주가/공간문화기획자 **이한주**

요기가(yogiga) 대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시각디자인 전공. 일본, 중앙아시아, 뉴질랜드 공연 투어. 실험 가게 '요기가 널판 Yogiga Nullpan' 운영 중. 정기 즉흥 및 실험표현 발표회 '불가사리' 공동 진행.

록 밴드 곱창전공 리더/가수/기타리스트/작사·작곡가 **사토 유키에**

1999년 한국 최초 일본인 록 그룹으로 데뷔. 한국 록 밴드 '시나위', '윤도현 밴드', '황신혜 밴드' 및 한대수 등을 일본에 초청해 공동 콘서트 주최. 곱창전공 앨범 1집 《안녕하시므니까?》(1999), 2집 《나와 같이 춤추자》(2011), 3집 《그날은 올 거야》(2013), 4집 《메뉴판》(2014), 베스트 앨범 《Vintage Rock: The History of Kopchangjeongol》(2016) 및 솔로 앨범《사랑스러운 그대》(2009) 발표. 대표작: 고향, 노가리 트위스트.



피아니스트/작곡가 **계수정**

예원, 서울예고, 연세대학교 졸업(피아노), 미국 버클리 음대, Boston Conservatory(재즈, 작곡, free Improvisation) Diploma와 석사학위. sOo's collage 리더. 미국, 독일, 쿠바, 뉴질랜드, 일본 등의 페스티벌 및 투어 연주. 현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교수.

음악오늘

음악오늘의 자세한 정보 및 문의

musikheute@daum.net | www.musikheute.com | www.faebook.com/umakonl
대표전화 | 010 3049 0420

자발적 관람료

계좌번호 | 신한은행 140 010 846240 예금주 | 음악오늘
음악오늘은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오늘을 만드는 사람들

신수정 김두영 김은진 양지선 김지영 양영광

주최 | 주관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Live 장소



sueño339
SPACE of ART
예술공간수애노

본 공연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중장기지원사업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